



# 에너지需給變化와 石油産業의 対応方向

우리 나라의 에너지需給動向에 중대한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全体에 能源供給의 主宗을 이루었던 石油가 LPG (液化石油가스) 石炭 등 石油代替에 能源에 밀려 점차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脫石油政策에 그 원인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高油價와 景氣침체에 따른 油類需要의 감소와 LPG 등 石油代替에 能源의 供給力增大에 따른 能源市場에서의 價格競争의 表面化 등을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石油製品消費美績은 70년대의 高度成長에 힘입어 지난 69년의 5천 1백 84만 8천 배럴에서 79년에는 1억 8천 5백 37만 7천 배럴로 10년 동안에 무려 3.7배의 증가를 기록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石油危機와 소비절약등으로 그 후 해마다 減少하여 80년에는 1억 8천 3백 49만 8천 배럴로 前年對比 1.0%가 감소했고, 81년에는 1억 8천 2백 25만 2천 배럴로 前年對比 0.7%의 감소를 나타냈다.

81년도의 国内 主要油種別 소비실적을 분석하면;

## 揮 發 油

▲ 81년 소비실적은 6백 1만 배럴로 前年對比 14.5% 감소

### ▲ 減少要因

- ① 油價引上 및 소비절약에 따른 소비감소.
- ② 營業用 택시의 LPG 燃料 전환 (LPG 택시 증가)  
-9,351대 (80년 5월 이전) → 24,904대 (81년

3월 이후) : 15,553대 증가

## 燈 油

▲ 81년 소비실적은 7백 86만 5천 배럴로 전년대비 5.8% 감소.

### ▲ 減少要因

- ① 燃料高級化 현상에 따른 프로판 및 都市가스로의 가정연료 전환 추세
- ② 취사·난방용 燈油의 소비절약 및 일부 無煙炭으로 연료 전환  
- 無煙炭 (民需用) 소비 : 81년 전년대비 2.6% 증가 (18,037톤 → 18,509톤)

## 輕 油

▲ 81년 소비실적 3천 9백 13만 7천 배럴로 전년대비 3.4% 증가.

### ▲ 增加要因

- ① 수송물동량의 증가  
- 鉅業, 製造業 출하 지수 81. 11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10.3% 증가.
- ② 디젤승용차 및 화물차 신규운행 : 13,267대  
- 81. 12월 현재 승용차 6,883대, 화물차 (픽업) 6,384대.
- ② 버스 및 貨物차량 (등록) 증가  
- 81. 10월 말 현재 80. 12월 말 대비 7.8% 증가 (269천대 → 290천대)

**빙 커 C 油**

▲ 81년 소비실적은 9천 2백54만 9천배럴로 전년 대비 0.4% 감소

▲ 減少要因

- ① 全体제조업생산지수는 81. 11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했으나 油類大量소비업종의 생산지수는 저조
  - 化学工業用(總빙커C油의 10.4%)은 1.7% 증가에 불과
  - 시멘트, 요업등의 非金屬 광물제조업 (總빙커C油의 10.1%)은 1.6% 감소.
- ② 發電用 燃料 사용증가
  - 81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8.3% 증가 (41,470천배럴→44,911천배럴)

**나 프 타**

▲ 81년 소비실적은 2천63만 3천배럴로 전년 대비 4.0% 감소

▲ 減少要因

- ① 化学工業생산지수는 81. 11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나
  - 肥料제조용 소비는 81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 (7,534천배럴→7,132천 배럴)

**프 로 판**

▲ 81년 소비실적은 2백35만 2천배럴로 전년 대비 19.8% 증가

▲ 增加要因

- ① 所得증가 및 燃料고급화추세에 따른 수요증가
  - 商業및 가정용에서의 燃料 전환으로 장기적 증가추세.

**부 탄**

▲ 81년 소비실적은 2백61만 1천배럴로 전년

비 2.9% 증가.

▲ 增加要因

- ① 영업용 LPG車輛의 증가
  - 9,351대 (80. 5월 이전)→24,904대 (81. 3. 18이후)

**其 他**

▲ 81년 소비실적은 1천 1백10만 배럴로 전년 대비 1.9% 감소.

▲ 減少要因

- ① 溶劑 27.9% 감소 (고무제품생산지수:81. 11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
- ② 아스팔트 6.2% 증가 (官需用 需要 81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49.2% 증가: 470천드럼→701천드럼)
- ③ 重油 28.8% 감소
- ④ 輕質重油 17.8% 감소
- ⑤ 제트油 17.8% 增加

油種別 消費推移

(單位: 千배럴)

油種	区分	'80	'81	前年对比(%)
揮 発 油	高 級	7,019	6,001	△14.5
	普 通	1,639	1,163	△29.0
		5,380	4,838	△10.1
燈 油		8,350	7,865	△ 5.8
軽 油		37,860	39,137	3.4
軽 質 重 油		2,779	2,285	△17.8
重 油		1,843	1,313	△28.8
빙 커 C 油		92,955	92,549	△ 0.4
나 프 타		21,497	20,633	△ 4.0
제 트 A - 1		2,822	2,988	5.9
제 트 A - 4		1,711	2,351	37.4
프 로 판		1,963	2,352	19.8
부 탄		2,537	2,611	2.9
溶 劑		377	272	△27.9
아 스 팔 트		1,849	1,893	2.4
其 他		2	2	0
計		183,498	182,252	△ 0.7

이와같은 전반적인 石油제품소비의 감소추세속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LPG등 가스燃料의 石油代

替와 石油市場規模의 축소현상이다.

81년의 石油製品소비실적을 보면, 揮發油는 6백 1천배럴로 前年對比 14.5%나 줄어 들어 全体油種中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高級揮發油는 무려 29.0%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것은 油價引上 및 소비절약에 따른 소비감소와 營業用 택시의 LPG연료전환이 그 主因이 되고 있다.

또 燈油는 최근 燃料高級化現象에 따른 가정연료의 프로판 및 都市가스로의 轉換과 취사·난방용 燈油의 소비절약 및 일부 無煙炭으로의 연료전환에 영향을 받아 81년의 소비실적은 7백86만 5천배럴에 그쳐 前年對比 5.8%의 감소를 기록했다. 또 병커C油는 油類대량소비업종의 需要不振으로 9천 2백54만 9천배럴로 전년대비 0.4%나 감소했다.

한편 전반적인 油類製品의 감소추세와는 대조적으로 LPG소비는 81년에 4백96만 3천배럴 (前年對比 10.3% 증가)로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이中 프로판은 國民生活의 所得增加 및 연료급화현상에 따른 需要增加에 힘입어 前年對比 19.8%나 증가하여 「燃料의 가스化」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燃料의 가스化추세는 石油類製品의 소비구조변동에서도 如是히 나타나고 있다. 즉, 全体油類소비중에서 揮發油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의 6.6%에서 81년에는 3.3%로 격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高級揮發油는 정부의 高油價政策의 영향으로 73년의 1.9%에서 81년에는 0.6%로 거의 3분의 1 이하수준으로 줄었으며, 産業用 병커C油는 73년의 55.0%에서 81년에는 50.8%로 감소했다.

한편 LPG는 아직 전제소비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미미하지만, 최근 「燃料의 가스化」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73년의 1.0%에서 81년에는 2.7%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반적으로 油類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各에너지間의 競争이 격화되고 있으며, 또 需要者가 價格, 品質등을 선택하는 市場에 커니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LPG, 都市가스등의 증가와 燃料油의 격감은 代替에너지가 石油市場을 浸蝕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 LPG나 LNG(液化天然가스)가 石油중간제품을 量的으로 압도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燃料의 가스化」정책에 힘입어 그 比重을 높여 갈것은 틀림없다. 정부의 都市가정연료의 가스化계획에 따르면, 81년 현재 72만 家口에서 오는 86년엔 총가구의 30%인 2백50만 家口에 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택시연료도 LPG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政府는 오는 84년 京畿道平沢郡포송면 LNG受入基地 1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 釜山, 仁川등 大都市에는 都市가스를, 中小都市에는 지역별 집단가스(LPG)를 공급할 계획이다.

바야흐로 우리 나라의 에너지産業은 에너지需給의 구조적 변화속에서 價格競争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精油産業의 체질강화와 方向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脫石油정책이 진전되는 추세속에서 精油産業과 其他에너지産業의 경쟁관계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 앞으로 景氣가 회복된다 해도 油類수요의 급격한 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石油市場규모의 축소와 其他에너지와의 경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精油産業은 이에 対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82~86年)은 石油依存度를 80년의 60.3%에서 86년에는 49.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國內 精油産業이 단순히 石油를 精製·供給하는 企業이라는 관념이 존재하는 한, 石油資源의 절대적 有限性과 함께 原油의 단순도입정제 방식에 의한 Independent Refinery로서의 國內 精油産業의 한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國內 精油産業은 단순히 石油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순기업에서 탈피, 綜合에너지企業으로 方向轉換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石油및 에너지소비구조변화에 적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源의 개발및 획득을 통해 지속적인 成長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적인 면에서도 과도한 行政介入을 지양하고 市場에 커니즘에 입각한 油價政策이 요구되며, 전면적인 油種間 가격조정을 통해 油價체계를 재조정하고 휘발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인하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金乾洽·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